

국내외 식품시장 분석 및 시사점

최지황(산업분석부, jihwang@kdb.co.kr)

세계 식품시장은 '08년 4.8조달러에서 '14년 5.3조달러로 연평균 2.0% 성장하였다. 품목별로는 세계 식품시장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일반식품류의 성장이 정체된 데 비해 음료 및 담배가 식품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 지역의 성장세는 둔화되어 '14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식품시장이 유럽을 제치고 세계 식품시장 1위를 달성하였다. 세계 식품시장은 중남미·아시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며 '15년 5.6조달러에서 '18년 6.3조달러로 연평균 4.2% 성장하여 거대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식품시장은 '08년 98.6조원에서 '14년 139.1조원으로 연평균 5.9% 성장하였는데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1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14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국내 식품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고 이어 축산물, 수산물, 농임산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식품시장은 인구·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 시 작은 편이고, 국내 식품 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세계 최대 식품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의 고성장 전망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식품시장은 원재료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 곡물시세 및 환율 변동의 영향이 큰 특징이 있다. 따라서 투기성 자금 유입 등 국제 곡물시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농업생산 확대 및 곡물유통망 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인 곡물 수급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되는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의 식품 소비성향이 안전을 중시하나 자국산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강조 마케팅 및 맞춤형 제품개발을 통해 중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한류를 활용하여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배경

최근 전통주력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의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해, 필수소비재산업인 식품산업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식품시장은 '08년 98.6조원에서 '14년 139.1조원 규모로 연평균 5.9% 성장하였으며 국내 식품시장이 국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8.9%에서 '14년 9.4%로 상승하는 등 식품산업은 국내 주요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 인지도 및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식품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은 국내 식품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14년 기준 국내 식품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5.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곡물자급률은 24% 수준으로 밀, 옥수수 등 원재료의 수입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성장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및 곡물시세 상승 시 국내 식품업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세계 식품산업의 품목별, 지역별 특징 및 타산업 대비 성장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내 식품산업의 분석에 따른 기회, 위협 요인을 파악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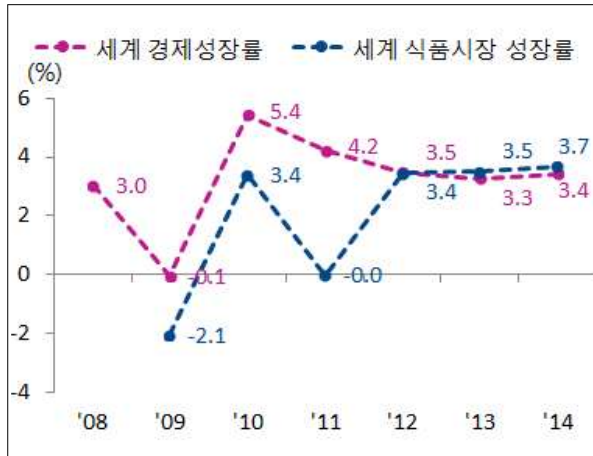
세계 식품산업¹⁾

1. 세계 식품시장 동향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식품시장은 '08년 4.8조달러에서 '14년 5.3조달러로 연평균 2.0% 성장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9~'12년 중 세계 식품시장 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였으나, '11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13년부터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세계 식품시장이 세계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된 기간 중에는 필수소비재 성격을 지닌 식품시장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며 7%대를 상회하였으나, '11년에는 6.6%로 하락하였고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14년에는 6.9%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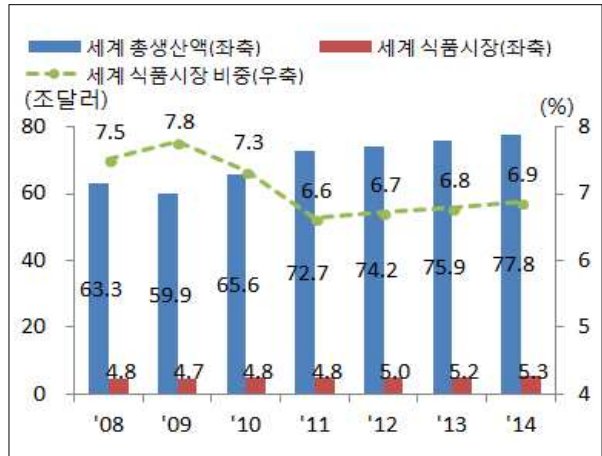
1) 본고에서는 세계 식품시장 조사기관인 Datamonitor의 분류에 따라 세계 식품시장은 일반식품, 주류를 제외한 음료, 담배의 합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국내 식품관련 통계조사 수치와 다름을 알린다.

<그림 1> 세계 식품시장 성장률 추이



자료 : IMF, Datamonitor

<그림 2> 세계 식품시장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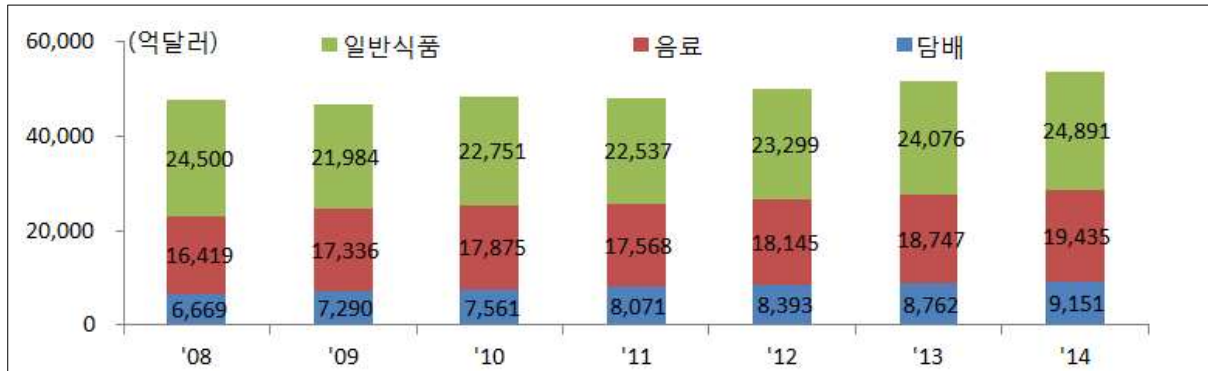


자료 : IMF, Datamonitor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등 일반식품류의 성장이 정체되는데 비해 음료 및 담배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식품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식품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일반식품류의 경우 '08~'14년 중 연평균성장률이 0.3%에 그친 반면, 음료 및 담배의 경우 같은 기간 중 각각 2.9%, 5.4%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식품시장에서 일반식품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51.5%에서 '14년 46.5%로 감소하였으나 음료는 34.5%에서 36.3%로, 담배의 경우 14.0%에서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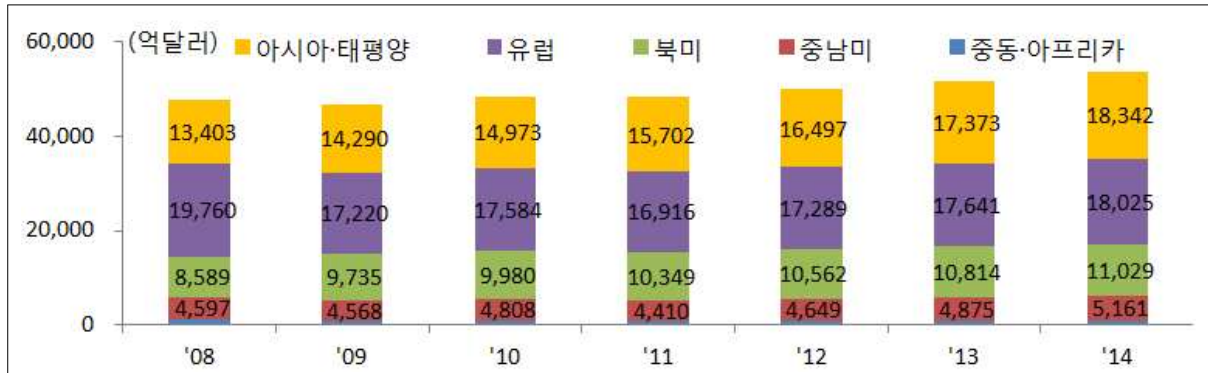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 지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08~'14년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시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4% 성장하여 1.8조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나, 유럽지역은 같은 기간 중 연평균 1.5% 감소하여 '14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식품시장이 유럽을 제치고 세계 식품시장 1위를 달성하였다. 세계 식품시장의 지역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08년 28.2%에서 '14년 34.3%로 증가한데 비해 유럽은 41.5%에서 33.7%로 감소하였다. 한편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의 경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14년 기준 각각 20.6%, 9.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3> 세계 식품시장 품목별 규모 추이



자료 : Datamonitor

<그림 4> 세계 식품시장 지역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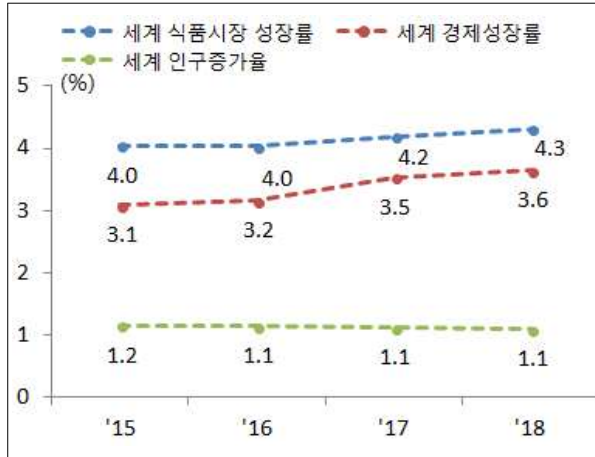


자료 : Datamonitor

2. 세계 식품시장 전망

세계 식품시장은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식품시장은 '15년 5.6조달러에서 '18년 6.3조달러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 세계 경제성장률 및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중동·아프리카 식품시장이 각각 7.2%, 6.3%, 4.3% 성장하여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식품시장의 경우 3.5% 성장이 예상되어 세계 식품시장 성장률을 하회하나, 유럽(2.5%), 북미(1.6%), 일본(0.2%) 등과 비교하여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8년 세계 식품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3조달러 규모로 세계 식품시장의 37.2%를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의 시장규모는 1.4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및 북미의 시장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우리나라는 세계 식품시장의 1.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세계 식품시장 성장률 전망



자료 : IMF, UN, Datamonitor

<표 1> 식품시장 지역별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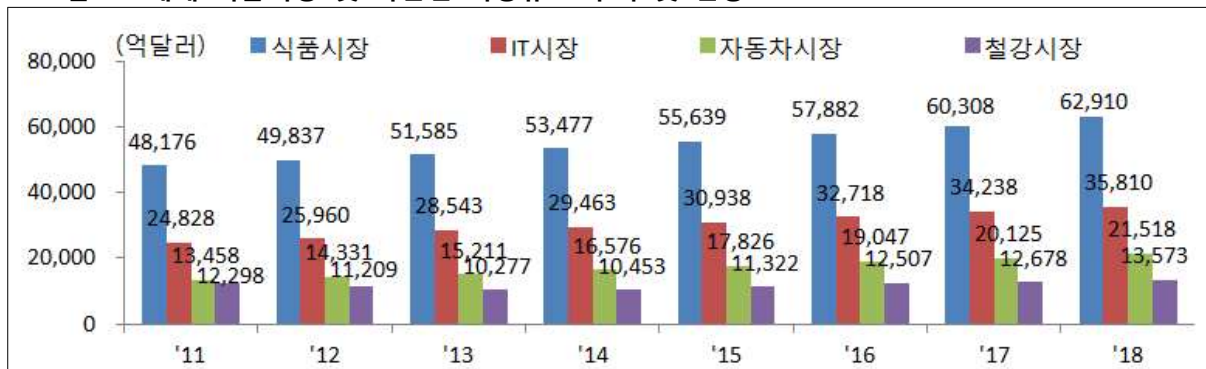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

	'15	'16	'17	'18	증가율
세 계	55,639	57,882	60,308	62,910	4.2
아시아	19,482	20,674	21,966	23,380	6.3
중국	11,040	11,967	12,979	14,084	8.5
일본	3,336	3,342	3,344	3,353	0.2
한국	689	712	738	765	3.5
유 럽	18,471	18,916	19,396	19,883	2.5
북 미	11,235	11,434	11,624	11,795	1.6
중남미	5,491	5,860	6,282	6,765	7.2
중 동	959	998	1,040	1,087	4.3

주 : 증가율은 '16~'18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 Datamonitor

한편 세계 식품시장은 세계 경제에서 거대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나 타산업과의 시장규모 차이는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1~'18년 중 세계 식품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은 3.9%로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하나 자동차(6.9%), IT(5.4%) 등 타산업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1년에 세계 IT시장의 1.9배, 자동차 시장의 3.6배에 달하던 세계 식품시장은 '18년에는 세계 IT시장의 1.8배, 자동차 시장의 2.9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단, 공급과잉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세계 철강시장과의 규모차이는 '11년 3.9배에서 '18년 4.6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세계 식품시장 및 타산업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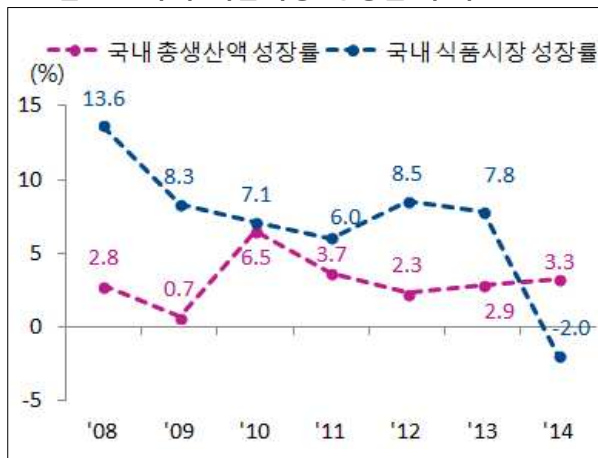
자료 : Datamonitor

국내 식품산업²⁾

1. 국내 식품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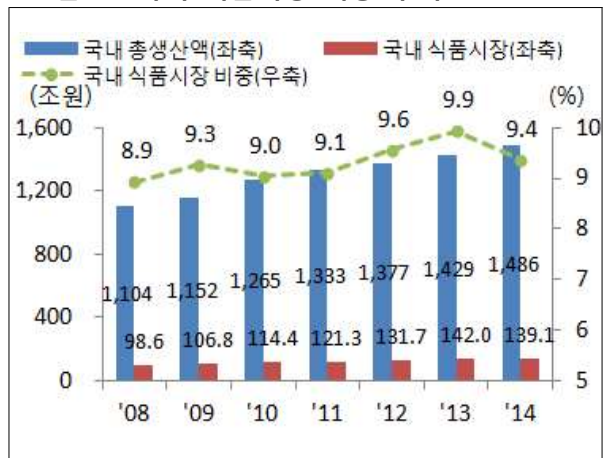
국내 식품시장은 '08년 98.6조원에서 '14년 139.1조원으로 연평균 5.9% 성장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 국내 총생산액 연평균성장률인 5.5%를 상회하는 수준이나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1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14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국내 식품시장이 국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8.9%에서 '13년 9.9%까지 상승하였다가 '14년에는 9.4%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림 7> 국내 식품시장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8> 국내 식품시장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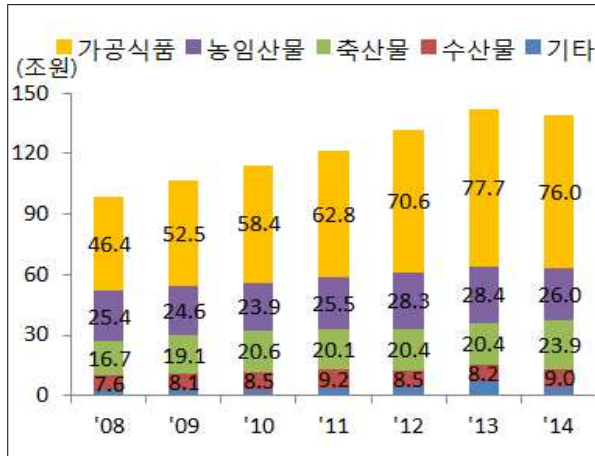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국내 식품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08~'14년 중 가공식품의 연평균성장률은 8.6%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어 축산물(6.1%), 수산물(2.9%), 농임산물(0.4%) 순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시장규모는 '08년 46.4조원에서 '14년 76.0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 식품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농임산물, 축·수산물의 경우 시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국내 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14년 기준 식품시장 품목별 비중은 가공식품 54.6%, 농임산물 18.7%, 축산물 17.1%, 수산물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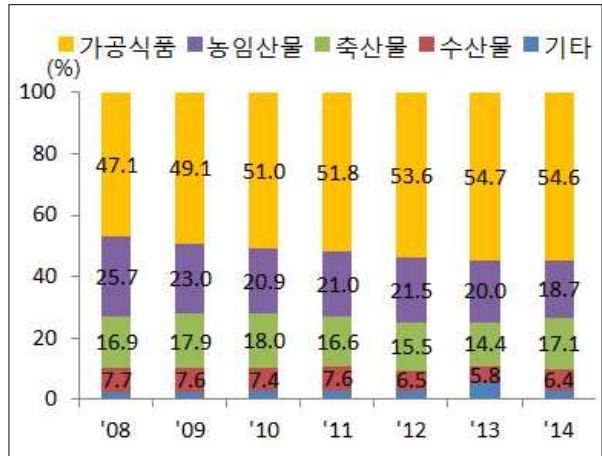
2) 국내 식품시장 관련 통계 작성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류에 따라 국내 식품시장은 가공식품,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기타(기구용기포장 등)의 합계로 구성되며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된다.

<그림 9> 국내 식품시장 품목별 규모 추이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10> 국내 식품시장 품목별 비중 추이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식품시장은 국내생산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수출비중이 낮은 편이다. '08~'14년 중 국내 식품생산이 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수입은 수출의 3~4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08~'11년 중 증가세를 유지하던 수출은 '11년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2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최근 엔저 등으로 대일본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수출 규모는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류인기에 따른 식품 인지도 상승 등으로 중국·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및 UAE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내 식품산업 생산·수입·수출액 추이

(단위 : 조원)

	'08	'09	'10	'11	'12	'13	'14
생 산 액	85.7	95.2	101.6	105.1	114.8	122.1	121.5
수 입 액	16.8	16.5	18.4	23.5	24.0	26.6	24.3
수 출 액	4.0	5.0	5.6	7.2	7.1	6.7	6.7
무역수지	△12.8	△11.5	△12.8	△16.3	△16.9	△19.9	△17.6
시장규모	98.5	106.7	114.4	121.4	131.7	142.0	1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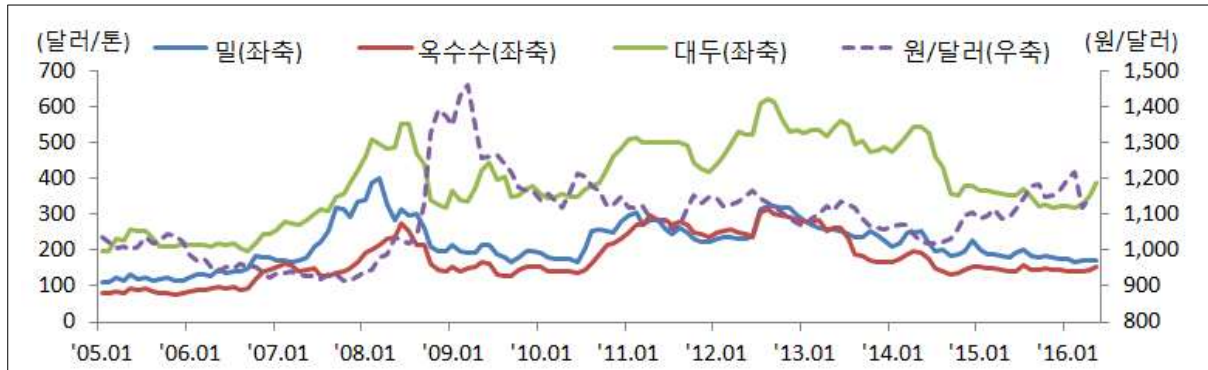
주 : 시장규모 = 생산액 + 수입액 - 수출액, 무역수지 = 수출액 - 수입액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 국내 식품시장 특징

국내 식품산업은 원재료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 곡물시세 및 환율 변동의 영향이 큰 편이다. 사료를 포함한 국내 곡물자급률은 24%(사료 제외시 50%) 수준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국제 곡물시세는 투기적 가수요가 존재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변동성이 상존한다. 또한 환율상승 시 식품원재료 등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식품시장은 외부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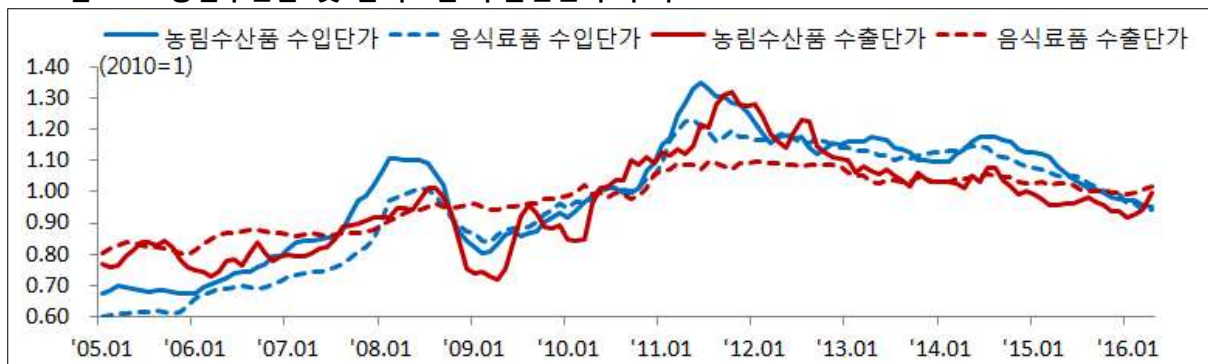
주요 국제 곡물시세 및 환율 동향을 살펴보면 곡물시세는 '12년 하반기 미국, 남미 등의 극심한 가뭄 등 이상기후로 단기 급등하였으나 이후 수급이 조절되면서 '13년 이후 하향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환율은 '14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식품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2> 주요 곡물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시카고상품거래소, 한국은행

<그림 13> 농림수산물 및 음식료품 수출입단가 추이



주 : 단가 = 금액지수/물량지수
 자료 : 한국은행

3. 국내 식품시장 전망

국내 식품시장은 인구·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 시 작은 편이고, 수출 비중이 낮은 점 등의 이유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식품시장은 1,172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 식품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품시장 규모는 591억달러로서 세계 15위권인데 비해, 식품교역 규모는 296억달러로 세계 22위에 그치고 있으며, 식품시장 규모 대비 식품수출액 비중은 10.5% 수준으로 식품교역 상위 22개국 평균인 42.6%를 밑돌아 수출확대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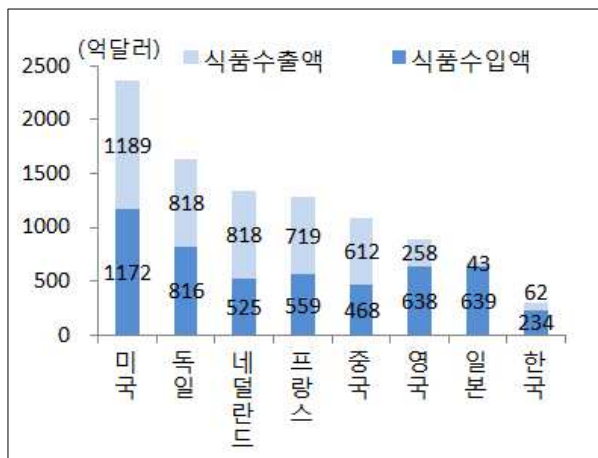
<표 3> 1인당 식품시장 규모('14년 기준)

(단위 : 만명, 억달러, 달러)

	인구	식품 시장	1인당 식품시장	1인당 국민소득
미 국	31,886	9,994	3,134	55,230
이 태 리	6,079	1,852	3,047	34,580
스 페 인	4,648	1,359	2,924	29,390
일 본	12,713	3,327	2,617	42,000
포르투갈	1,040	311	2,990	21,360
그 리 스	1,087	277	2,548	22,810
한 국	5,042	591	1,172	27,090
중 국	136,427	10,223	749	7,400
세 계	725,969	53,477	737	10,799

주 : 1인당 국민소득은 GNI 기준임
 자료 : Datamonitor, World Bank

<그림 11> 주요국별 식품교역액 규모('14년 기준)



자료 : Euromonitor

한편 세계 식품시장의 약 20% 규모인 세계 최대 중국시장은 향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이 전망되는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 식품에 호의적이어서 국내 업계의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유럽, 미국 등 식품산업 선진국에 비해 신선제품, 유제품 등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군을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국가별 식품 선호도 조사³⁾에서 우리나라가 한류의 영향으로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것도 최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중국의 식품 소비성향을 고려할 때 대중국 식품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농촌진흥청(2013.10) “중국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공식품 원산지별 만족도 조사”

시사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대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는 국내외 식품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성장 전망 및 타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식품시장 성장가능성을 전망하였는 바, 이를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국제 곡물시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곡물 수급처 확보가 요구된다. 앞서 국내 식품시장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내 식품시장의 경우 원재료 수입비중이 높아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및 곡물시세 상승 시 국내 식품업계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국제 곡물시세는 과거에는 기후, 생산 및 수출 등이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정 요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에너지가격 및 투기성 자금 유입 등도 시장의 수급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안정적인 곡물 수급처 확보를 위한 해외 농업생산 확대 및 곡물유통망 확보 등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되는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신화망(新華網)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신뢰할 가치가 있는 상표(56.3%)로 나타났으며 저렴한 가격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짜 계란, 쓰레기 고기 등 식품 스캔들로 자국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식품은 한류효과 등으로 중국에서 안전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 유제품, 제과, 면류, 인삼가공식품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강조 마케팅 및 맞춤형 제품개발을 통해 중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류를 활용하여 동남아, 중동 등 성장성이 높은 신흥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